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 진 호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jhkim@krx.co.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 San Diego / International Affairs (국가) 미국		
기 간	2015. 8 ~ 2016. 8		[귀국일: 2016년 8월 4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기후) UC San Diego는 California주 La Jolla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1년 내내 구름과 비를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기후가 좋음. 겨울에도 한국에서 가져간 바람막이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며, 낮에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에 육박함. 여름에는 햇볕으로 인해 낮에는 매우 더우나 그늘에서는 시원함을 느낄 정도이며, 밤에는 서늘하여 기후가 매우 쾌적함.

(지리적 위치) UC San Diego 미국 LA에서 남쪽으로 2시간, 멕시코 국경에서는 북쪽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음.

(생활관련) UC San Diego가 소재한 La Jolla시는 San Diego County에 편입되어 있으며, 미국내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Housing Rent 등 전반적인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이나, 흑인이 거의 없어 치안이 매우 잘 되어 있음.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 San Diego는 International Affair 분야에서 미국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학교로서 교수들과 Staff분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음.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라틴아메리카 등에 대한 지역학 전공과목도 많이 개설되어 있어 희망여부에 따라 폭넓은 신청신청이 가능함. KDI School에서 온 학생들은 Global Policy and Strategy 단과대학 소속으로 대부분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를 전공함. 본인의 경우 첫 학기는 한국에서 KDI School을 졸업한 회사 선배들과 KDI 입학동기들에게 전해 들었던 막연한 학업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꽤 했지만, 막상 학교분위기와 생활에 적응이 되니 UC San Diego에서의 학업 부담

은 거의 없었음. UC San Diego에는 KDI와 유사한 재무 및 회계관련 과목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어, 영어발표 및 토론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전략적인 수강신청을 통해 학업부담을 상당부분 최소화 할 수 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 UC San Diego에는 재무, 회계, 경제 관련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 학업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본인의 경우 학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토론 및 발표위주의 수업은 필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음. UC San Diego의 수강신청의 경우 매 과목마다 인원제한이 있기는 하나, 인원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것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음.

(경험) 첫 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인 Politics and International Policy Making 과 Economics of the Pacific Rim을 무사히 이수하면, 그 이후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선택과목을 위주로 수강할 수 있어 큰 학업부담이 없음. 다만, 마지막 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Capstone 과목이 매주 Paper 제출과 Presentation을 요구하여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또한 조원들과 잘 협조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졸업이 가능함

(평가) UC San Diego에 지원하기 전 졸업을 위해 12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막연한 학업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꽤 했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음

(제안) UC San Diego가 소재한 La Jolla는 미국내에서도 기후와 치안이 매우 탁월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 생활을 해보니 가족과 동반 연수를 오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현명한 연수지역이라고 판단됨. 향후 KDI School GMP과정 학생들이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학교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함.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렌트) La Jolla 지역은 2016년 현재 Two Room Apartment의 월 렌트비는 약 2,500불 이상임. 하지만 UC San Diego 학위 과정 학생에게는 가족기숙사가 제공되어 약 1,000불에서 1,300불 수준에서 기숙사 입주가 가능함.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음.

(음식) San Diego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H Mart, Zion Market 등에서 한국 식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음. 또한 Convoy지역에 작지만 한인타운이 있어 음식에 대한 불편함은 없음.

(제안) UC San Diego 가족기숙사의 경우 주변에 비해 렌트료가 매우 저렴하여 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높음. 따라서, 미국 이주 시점에 맞추어 기숙사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UCSD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3월)에 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행 및 레저) UC San Diego는 3학기로 진행되고, 매학기 중간에 1~2주 정도의 방학이 있음. 방학기간과 학기중의 공휴일을 잘 활용하면 가족과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음. 본인의 경우 미국 서부의 주요 4대 캐년(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앤젤로프캐년) 등을 학기중에 주말을 통해 여행했으며, 방학에는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멕시코 칸쿤 및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등을 여행함. 또한 학기중에는 틈틈이 짬을 내어 골프를 즐김. 미국 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UC San Diego에서 1년간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음. 기후가 좋지 못한 미국 북부나 동부에서 1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음. GMP 후배분들에게는 주변의 선입견에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UC San Diego로의 지원을 추천함.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 UC San Diego의 학위과정 지원자에게는 J비자가 아닌 F비자가 발급되어 미국학교 졸업 후 2달간 미국 체류가 가능함

(출·입국) 한국에서 San Diego로의 직항편이 없어 미국 내 다른 도시(LA, San Francisco) 경유편을 이용 하거나, 일본 경유편을 이용하여야 함. 본인의 경우 LA 직항편을 통해 도착한 후 미니밴을 렌트하여 San Diego에 도착함

(해외생활) 미국에서 여행 및 생활할 때 차량은 매우 중요함. 본인은 미국 도착 후 1주일 후에 미니밴을 구입하여 생활함. 미니밴은 미국 여행 및 생활시 매우 편리함. 또한 아이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영어를 조금 공부 시키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영어과외 및 After school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학교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함.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UC San Diego를 선택하여 1년간 생활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음. 수업 및 학점이수에 대한 부담도 실제 크지 않고 생활환경이 매우 좋기에 향후 GMP 후배들에게 UC San Diego를 강력하게 추천하여 주고 싶음.



교학처장 귀하

2016 년 9 월 20 일

신 청 인 : 김 진 호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 창 규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cgchong@krx.co.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 GPS	(국가) 미국
기 간	2015. 8 ~ 2016. 7	[귀국일: 2106년 7월 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기후) UCSD는 미국 서부의 도시인 San Diego에 있음. San Diego는 지중해성 기후로 온도는 높으나 습도가 낮아 생활하기에 적합함. 또한 겨울 (11~2월)을 제외하고는 비가 내리지 않으며, 겨울 날씨도 한국의 가을의 날씨 정도로 연중 생활하기에 쾌적함

(지리적 위치) San Diego는 미국 LA와 멕시코 국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지리적으로 멕시코와 근접해 있어 멕시코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특이한 점은 아프리카-아메리칸의 비율이 매우 낮음

(생활관련) UCSD는 San Diego 카운티의 La Jolla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매우 안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평가되고 있음. 도로, 주거 및 상가들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고, 야간 활동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음.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에서는 Global Policy and Strategy라는 전공으로 연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KDI와 유사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음. UCSD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개인적인 견해로는 KDI에서의 교육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양한 외국 교수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장점으로 사료됨.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 수강신청 과목에 경제/경영 전공과 같은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 연수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정치 및 안보 관련 과목도 있으나 평소 접하지 않은 분야이고,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수강신청의 경우 KDI와 같이 인원제한이 있기는 하나, 특정 과목에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 강의실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강인원을 늘려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음. **KDI에서와 같은 수강신청 스트레스는 없었음.**

(경험) UCSD에서 핵심(2과목), 전공(지역 2, 경제 4, 캡스톤 1)과목 및 기타 선택 과목을 수강하였음. 필수는 정치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매우 평이한 과목임. 지역과정의 경우 과목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나 그리 난해한 내용은 아님. 경제/경영과목은 회계, 파이낸스 과목 등으로 KDI에서 유사과목 수강 시 어렵지 않게 이수 가능함. 캡스톤의 경우 팀별로 매주 과제제출 및 발표와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목으로 수업에 부담이 있음

(평가) UCSD에 지원하기 전에 동 학교에 대한 수업부담에 대해 주위 및 학교로부터 많이 들었으나,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수강신청을 탄력적으로 하는 경우 KDI에서의 수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됨.

(제안) UCSD는 미국에서도 생활여건이 매우 탁월한 도시이며, 수업에 대한 부담도 그리 많은 편도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가족과 함께 연수를 계획 중인 경우라면 UCSD를 추천해 주고 싶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렌트) UCSD는 미국에서 렌트비가 매우 높은 La Jolla 시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비는 매우 높은 수준임. 다만, UCSD 학위 수강자에게는 가족 기숙사를 제공하여 렌트비에 대한 부담은 매우 낮음(주변의 50% 수준).

(음식) San Diego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 타운 및 한인 쇼핑몰(H Mart, Zion Market) 등이 발달하여 있어 음식에 대한 문제는 적음. 다만,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경우 세금 및 봉사료가 항상 부가되어 한국에 비하여 매우 비싼 편임. 하지만, 미국 현지마트 (코스트코, 월마트 등)를 이용하여 생활한다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님.

(제안) UCSD 기숙사의 경우 주변에 비해 매우 저렴하여 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높음. 따라서, 미국 이주 시점에 맞추어 기숙사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UCSD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3월)에 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입학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숙사 신청 가능한 상황)함.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행) UCSD는 3학기로 진행되고, 각 학기별 11주 정도로, 학기 중간에 방학이 1~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장기간 여행은 다소 어려움. 하지만, 학기 중에 있는 공휴일을 잘 활용하면 큰 무리 없이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음. 특히 지리적으로 미국 서부에 위치하여 있어, 3대캐년, 엔텔로프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등의 지역을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수시로 다녀올 수 있음. 옐로우스톤, 캐나다 등의 지역은 학기 사이의 단기방학 및 연수 종료후 2개월의 그레이스피어리드 기간에 충분히 여행 가능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UCSD에 지원할 당시에는 GMP 선배들로부터 학업 부담감에 대한 경험담을 익히 들었으나 생활 여건이 쾌적한 점을 우선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상태로 지원하였음. 하지만, 막상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들으면서 전해들은 UCSD의 학업 부담은 사실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었음. 특히, 수강과목을 KDI에서 들은 유사과목으로 듣고, 토론식 및 팀별 프로젝트가 적은 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경우 학업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음.

또한, UCSD에서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생활상담, Writing center, social event 등)을 많이 해주어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었음.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 KDI에서 UCSD로 연수한 학위과정 5명 모두 비자와 관련한 불편한 점은 없었음. 다만, San Diego가 멕시코 국경과 근접하여 있어 국경 근처를 통과하여 여행시에는 검문소에서 비자 및 i-20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휴대가 필요함

(출·입국) 한국에서 San Diego로의 직항편이 없어 미국 내 다른 도시(LA, San Francisco) 경유편을 이용 하거나, 일본 경유편을 이용하여야 함. 또한 LA 직항편을 이용한 후 렌트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San Diego로 올 수 있음

(해외생활)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도착하자마자 차량편 확보가 필요함. 다만, 렌트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차량 구매가 필요함. 자녀(초등생)들 학교는 학위과정의 경우 대부분 Doyle elementary school로 보내며, 동 학교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아 인종차별 문제가 낮은 편이며, ESL 수업 지원 등 편리한 점이 많음. 다만 Native 비중은 낮은 편이며, 수시로 전입/전출이 많이 있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UCSD를 선택하여 GMP 2년차 과정을 마친 것을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함. 생활여건 측면에서는 다른 곳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수업부담 측면에서도 KDI에서의 수업 수준 정도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큰 부담이 없는 수준임. 따라서, 향후 GMP 후배들에게 UCSD를 강력하게 추천하여 주고 싶음. 또한, 교학처에서도 UCSD의 학업 부담 등을 과장되게 전해 주는 것은 지양하였으면 함.



교학처장 귀하

2016 년 8 월 3 일

신 청 인 : 정 창 규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 림	학번	
휴대전화	-----	이메일	asterio1@hanmail.net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 IRPS	(국가) 미국
기 간	2014.8.6 ~ 2015.7.30	[귀국일: 2015년 7월 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5년 12월 22일

신청인 :

최 림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생활(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등)

샌디에고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남서부 끝에 위치해 있다. LA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므로 주로 LAX공항으로 입국하여 차로 샌디에고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샌디에고는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경을 건너면 티후아나라는 지역인데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여 멕시코로 건너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8월 샌디에 고의 날씨는 우리나라 의 무더운 날씨를 피해간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기후였다. 햇살은 조금 따 감지만 습 하지 않고 쾌적 한 느낌이 었다. 하지만 9 월은 India n S ummer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9월보다 훨씬 덥다고 느껴졌다. 그래도 밤에는 서늘하여 잠을 자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냉방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다. 한가지 단점은 따가운 햇살이다. 선크림을 안바르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 금방 살이 검게 타버렸으며, 자동차가 금방 뜨겁게 달구어져 다시 탈 때는 잠시 한증막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때문에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리면 엄한 처벌을 받는 다고 한다. 본인은 갓난 아이를 포함해 아이가 셋이라서 가끔 주유할 때 아이를 그냥 두곤 했는데 'against law'라고 나에게 경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UCSD의 경우 9월 마지막 주가 학기가 시작이었지만 English as Second Language(ESL), math, 통계기초 등의 Prep과정인 7월부터 시작되었다. KDI 여름학기가 8월 초에 종료되어 모든 Prep과정에 대한 참여는 불가능하나 Prep이 7월 part1, 2주간의 break 후 4주간의 part 2로 진행이 되어 part2의 prep course를 수강하게 되었다. 본인은 Prep시작 2주전, KDI 여름학기 종료 직후 출국하여 약 2주간 미국 생활 정착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초기 생활의 어려움이나 빠른 정착 여부는 '돈'과 '영어실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돈이 있으면 현지 정착 도우미를 활용 할 수도 있고, 조금 바가지를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이것저것 준비하면 빠르게 정착이 가능할 듯 보인다. 혹은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자동차 구매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정확한 communication을 통해 바가지 쓸 염려도 줄어들고 한인 전용 거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소비가 가능하다. 한인을 통한 서비스는 거의 모두 현지 일반 서비스 대비 10~20%의 premium이 붙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착기간 2주 동안 물건을 기존 거주자에게 인수 받더라도 wal-mart, costco, ikea등 대형 할인매장을 계속 다니게 되었다. Costco는 한국에서 멤버십을 가입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다. 정착시 costco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므로 꼭 한국에서 가입 하고 출국 길에 오르길 추천한다. 물품 구입을 위해 자동차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중 하나였다. 자동차 구매 전에는 rent를 하였는데 미국에는 rent가 활발하여 Hertz, Avis, Enterprise등 가격대에 따라 많은 rent car 회사가 있었다. 같은 회사라도 Hotel에 있느냐 downtown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에는 차이가 있었다.

2. GMP 2년차 전반적인 교육 질에 대한 인상

UCSD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UC계열의 학교로서 Bio나 medical 분야 등으로 학문적 명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 관계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top 10 안에 들고, 세계 유수 대학 출신의 훌륭한 교수진이 포진해 있어 교육의 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School내에는 MIA(Master of International Affairs)라는 2년 과정과 본인이 수료한 MAS-IA(Master of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Affairs)의 1년 과정 등 2대의 Academic Course가 있으며 학생수는 MIA 과정이 한 학년 100명 정도, MAS 과정이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코스 모두 native와 international이 각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MIA는 학부를 졸업한 학생위주인 반면 MAS는 Professional(직무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MIA는 제 2 외국어를 선택하여 수료하여야 하나 MAS는 그러한 과정은 없다.

MAS는 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Politics 등 여러 개의 track 중 본인이 focus를 한가지 정하여 관련된 과목 3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정 나라나 지역과 관련된 과목(Japan, China, Latin America 등 Asia Pacific Region 위주임) 2개를 선택하여 이수하고 최종학기에는 Team Project 수행과목인 Capstone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목은 크게 정치분야, 경제분야, 외교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Big Data Analysis 등 통계와 관련된 과목이 간간히 배치되어 있다. UCSD의 경제학 분야가 통계에서 학문적 명성이 있어서 이러한 통계학 중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Corporate Finance 등 MBA와 관련되는 과목도 다수 배치되어 있다.

KDI School과 비슷한 1년 3쿼터제이지만, 1쿼터가 약 10주 정도로 KDI School보다 짧아 훨씬 타이트 하게 느껴진다. 그만큼 학기 시작 1주정도의 Warming-Up기간이 지나면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10주만에 많은 내용을 소화해 나가다 보니 중요한 사항만 강의시간에 다루고 나머지는 과제 등을 통해 채워 나가는 느낌이었다. 따라서 과제 양이 상당히 많아 부담이 되는 편이었으나 언어적 부담이 적은 native에게는 international 학생들처럼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수업은 활발한 학생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교수와 학생간에 스스럼 없는 논쟁이 가능했고 강의 중간 얼마든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자유롭고도 열띤 분위기였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UCSD에서의 수강신청은 통산 학기 시작 1달 전에 시작된다. 그런데 강의에 대한 소개자료나 정보가 다소 부족한 듯 보였다. KDI School에서는 Syllabus를 전년도 것을 공유하여 쉽게 어떤 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UCSD는 On-line상에 팔막한 강의 소개뿐이었다. 대신 수강신청 직전 담당자와 면담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강의 내용에 대한 원론적 얘기와 교수의 Style에 관한 사항이었고,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Instructor인 경우 아예 강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큰 어려움 이었다.

반면, KDI School처럼 인기 class에 대한 수강신청을 위해 치열하게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 거의 없었다. 대략 수강인원을 전년도 신청자를 참고하여 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적으로 Chinese Politics라는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이 과목이 신청개시 10분만에 마감되어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많았으나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수강신청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지만 간혹 예외가 있으니 가급적 빨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권한다.

성적은 homework 등 학생으로의 책무를 다하면 대부분 B이상이 나오는 것 같다. 간혹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었다. 미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리분야가 좀 약한 듯했다. 그래서 통계나 경제학 분야 등에서 한국, 일본 사람보다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본인의 경우 회계나 재무 분야 등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정치 및 국제관계 등 인문 분야 등에서는 발표 및 에세이로 성적이 정해지게 되어 언어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경우 A-이상 받기는 힘들어 보였다.

수강 신청 시 꼭 담당자와 면담을 하길 바란다. 도움이 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학생 별 직장이나 Track에 따라 몇 가지 과목들을 추천해 주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수강신청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알찬 교육 과정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한 학기 4 과목이 적은 과목이 아니다. 과제가 KDI 때보다 훨씬 많고 또한 수업 내용도 상당히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됨으로 꼭 관심 있는 과목을 2개정도 선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영어 실력 정도에 따라 수업강도와 흥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UCSD의 기숙사는 학내 기숙사와 학외 기숙사로 나누어져 있다. 학내 기숙사는 주로 학부생 들이 사용하고 있고 약간의 싱글 대학원 생도 살고 있다. 학외 기숙사는 Shuttle로 20~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Mesa라는 가족 위주로 설계된 기숙사와 One Miramar라는 싱글 위주로 설계된 기숙사가 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Mesa를 강력히 추천한다. Mesa는 20평에서 30평까지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푸르른 잔디를 끼고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아 보였다. One Miramar는 아파트형의 기숙사로 2인 1실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기숙사비는 Mesa의 가장 큰 평수가 1200불 정도이고 작은 평수가 950불, One Miramar는 가족이 한 세대를 모두 사용할 경우 1100불 정도를 월세로 낸다. Mesa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미리 입학 절차를 끝내고 가능한 빨리 기숙사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입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면 1~2달 다른 머물 곳을 구해야 하고 이사도 다시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은 Mesa가 일정상 어려워 포기하고 One Miramar에 입주하였는데 집이 좁거나 살기 어렵지는 않았다. 단지 넓고 푸른 잔디 마당이 아이들을 가진 부모인 나에게는 부럽게 느껴졌다.

기숙사 내부는 대부분의 미국식 집이 그렇듯이 카펫이 깔려 있었다. 미국 현지 사람들은 실제로 신발신고 거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장판이나 무언가를 깔고 한 국식 마루처럼 사용하였다. 중국 사람이나 다른 동양인들도 대부분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듯 보였다. 돌도 안된 갓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집은 특히나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놀이매트를 구매하여(아마존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매트 판매, off-line 매장은 가격이 훨씬 비쌌) 깔고 생활하였는데, 더럽혀진 카펫을 청소하기가 쉽지 않고 아이가 카펫 위를 기어 다닐 때 도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음식은 American Food는 우리 입맛에 맞지는 않았다. 간이나 느끼함이 한국에서 먹는 스타일 하고는 달랐고 가격도 웬만한 것들은 10불 이상으로 학교라고 싸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서 대부분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간혹 사먹는 음식은 피자나 햄버거 혹은 Cafeteria로 운영되는 곳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IRPS 내에는 여러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국제관계학과 특성상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성격의 동아리가 주류를 이루고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한국관련 동아리 이름은 '만남'이었는데 한국동아리라 한국 사람이 주류이지는 않고 한국에 관심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통 음식 체험 행사도 하고 한국영화 관련 상영회도 하는 등 한국을 알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자체에도 International 학생들을 고려한 많은 Event가 있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식사를 하며 특정 주제를 정해 서로 토론도 하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을 고려해 영어 Tutor를 연결 시켜주는 제도도 있었다.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

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좋은 Culture Sharing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의 대학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각 대학은 서로 경쟁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교수진을 갖추고, 좋은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잘 짜여져 있었고, 강의의 내용 또한 훌륭했다. 연속해서 진행되는 쿼터제 시스템과 학점 Transfer없는 12과목 수강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잘만 따라간다면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7. 비자 출입국 해외 생활정보

입학 합격을 통보 받으면 몇 가지 Instruction이 학교로부터 안내된다. 동양인에 대해서는 결핵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내줘야 하고 DS2019 발급을 신청을 해야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이 가능함으로 이와 관련된 online상에 작성해야 될 것들을 완료 해야 한다. 비자 interview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목적과 가족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금방 끝이 났다. 비자는 J-1과 F-1이 있는데, 학위과정은 학생 비자인 F-1도 발급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두 비자가 생활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운전면허 발급 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F-1비자는 면허시험 합격 후 2주 정도 후에 바로 면허증이 발급되지만, J-1의 경우 Social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Social number는 취업 시 세금 부과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용카드(현금카드 아님) 신청 시 말고는 사용해 본적은 없다. (외국인은 신용정보가 없어서 발급은 신용카드가 발급은 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 시 백화점 할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만 했을 뿐)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UCSD 학위과정은 가장 많은 과목수에 방학 기간도 짧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 선택 시 학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을 입학만 가능하여 토플을 미리 끝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배워가겠다고 생각하는 의지만 있고 토플만 4월 전에 끝낸다면 UCSD는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 실력도 부족한 본인도 1년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UCSD에서 공부한 것들이 세상을 보는 큰 안목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여행이나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타 학교보다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웬만한 곳을 여행할 만한 시간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라면 더 더욱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UCSD를 추천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많은 테마파크가 있고 아름다운 해변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UCSD를 이야기 할 때 이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조금의 열정이 있고 푸르른 캘리포니아의 하늘과 아름다운 beach를 좋아한다면 UCSD가 가볼 만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